

제3-28호

하나님이 세네갈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 8:17)”

주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간절하여 그 분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동역자님과 저희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1. 메마른 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교회가 없는 까야르라는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집 거실에서 매 주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마다 자체적으로 모여 기도회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근인 이 지역에서 적은 인원이지만 마음으로 모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에 은혜가 넘치기를, 힘든 삶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 성도의 자립을 위하여

말리에서도 성도들의 자립을 도왔었습니다. 그들이 재정적인 자립을 해야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립을 위해서 구멍가게, 양과 염소, 재봉틀 등... 성도들의 재능과 여건에 맞게 도왔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세네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성도 베프라 가족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부와 자녀 5명입니다. 남편은 55세, 직업이 교사지만 월급이 한화 20만원이 안됩니다. 아내도 허약하지만 남의 집 가정부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 중직을 맡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베프라 가족에게 구멍가게를 운영하도록 도우려고 기도하며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멍가게]에 필요한 재정은

월세 첫 달 15만원, 보증금 3개월: 45만원

냉동고40만원, 냉장고 40만원, 과자, 사탕, 음료수, 우유가루, 밀가루 쌀 등 진열하고 팔 물건 값: 100만원

***합계:240만원 (1구좌 5만원 * 48명의 후원자를 모집니다.) *2구좌 이상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태어나서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편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세네갈 크리스천들을 기억해주시요. 그리고 어둠에 가려져 진정한 삶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95%의 세네갈 무슬림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치거나 게으르지 않고 영혼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지속하도록 기도해주시요.

3. 복음과 빵

주중에는 무슬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한 빵을 나누고 있습니다. 빵이라고 함은 그들의 필요한 부식들과, 생활용품, 아이들에게는 장난감, 학용품 등도 포함이 됩니다.

무슬림들의 삶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기도제목

- 1. 온 가족이 영, 혼, 육의 강건, 지혜를 주소서.
- 2.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3. 예배를 통해서 까야르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소서.
- 4. 알리우 가족(18명)과 우세이누 가족(10명)이 복음에 반응하게 하소서.
- 5. 하울, 성울, 예울이가 이룬 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비전을 갖게 하소서.



이 땅으로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조항수 조신영 하울 성울 예울 선교사 올림.